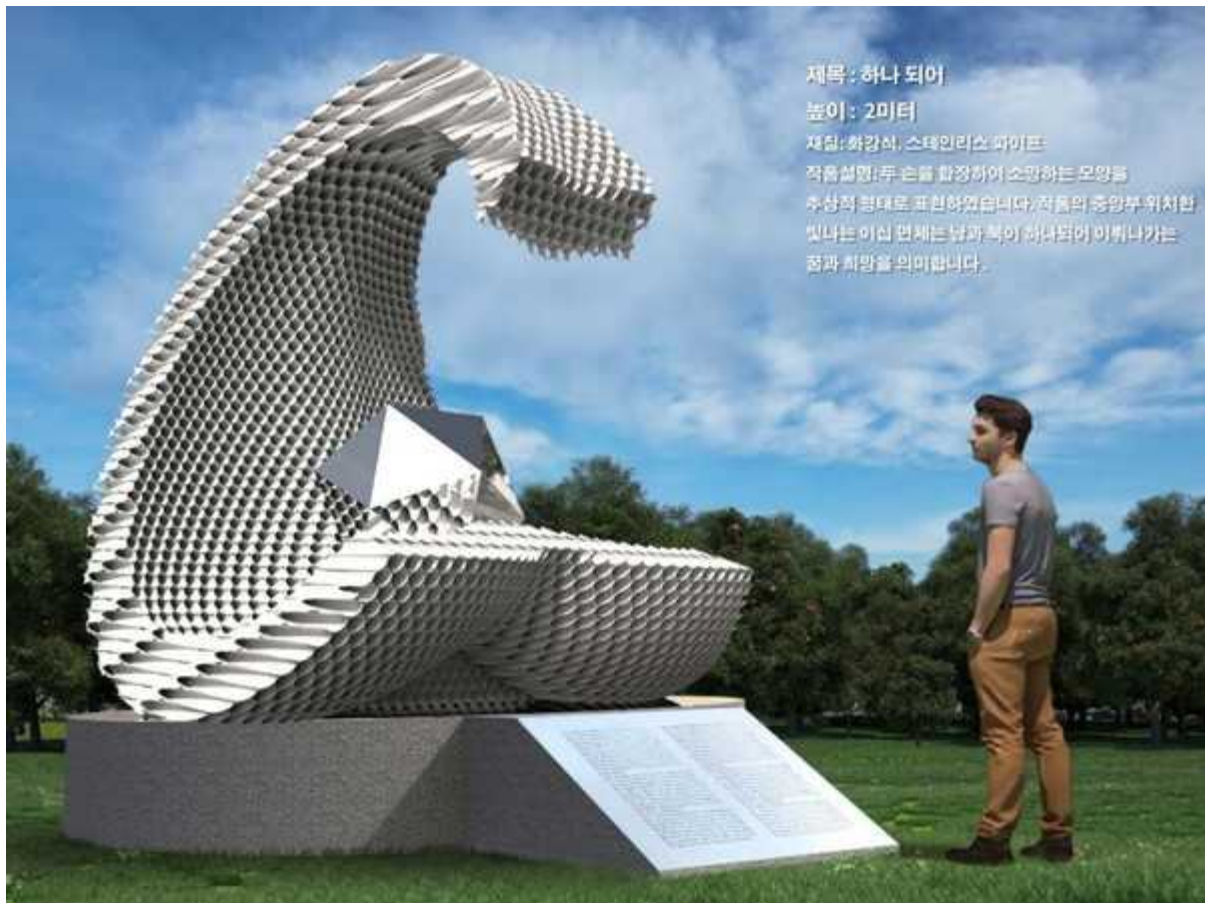


고성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조형물 설치·18일 제막식 개최

박종미 기자 | 승인 2021.11.10 05:50



▲ 고성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조형물 설치·18일 제막식 개최

[강원 위클리오늘=박종미 기자] 강원 고성군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기념조형물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건축조형미술연구소 이철희 소장의 '하나되어'작품으로 DMZ 박물관 야외공간에

설치된다. 2,080×2,960×2,340(h)mm 규모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제작된다.

제막식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 출발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날과 같은 오는 11월 18일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강원도지사, 고성군수,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막식은 <그리운 금강산>,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시청, 남북공동선언문 낭독, 제막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막식 종료 후에는 금강산관광재개 결의를 다지기 위한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우리의 평화열망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멈춰선 '한반도 평화열차'를 다시 출발시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루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박종미 기자 wknews002@daum.net